

제목 Theme: 복 있는 사람 **The Men by Blessing of God**

본문 Scripture: 마태복음 **Matthew 5:1-12 절**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When Jesus saw the crowds, He went up on the mountain; and after He sat down, His disciples came to Him.**
2.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He opened His mouth and began to teach them, saying,**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Blessed are the gentle,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receive mercy.**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Blessed are those who have been persecuted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and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Rejoice and be glad, for your reward in heaven is great;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늘 나라의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절대적인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이 축복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을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설교와 가르침은 오직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성도의 실천신학이며 이 내용은 오직 천국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인을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산으로 계속 올라가시니 마지막 앉으셨을 때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제자와 같은 성도들만 모여있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 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실천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역에서 먼저 복을 말씀하신 내용은 복음 자체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 1 서 3 장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그 없는 것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천국이라는 것을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구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이 세상에 대하여 전혀 욕심이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한다는 의미와 이 세상에서 어떤 이유에 의하여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슬프고 괴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용서 받는 의미와 복음을 위하여 억울 한 일을 당한 상태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회개함과 복음을 위하여 애통할 수 밖에 없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즉 천국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 장 29 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기업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가 차지하게 될 ‘하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천국 복음이 이 땅에서 기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37 편 11 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실천하고 노력하는 의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이 받을 복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생명의 떡’과 ‘영생의 생명수’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 **“궁핍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그들이 궁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궁핍히 여기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보내어 죽기까지 궁핍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으로 그들이 궁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9 장 31 절에서 “주의 궁핍이 크시므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궁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 장 13 절에서는 “궁핍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핍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핍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궁핍히 여기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응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로 인한 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의는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으로 성경 또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통과 핍박을 받으며,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며 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극히 싫어하는 악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지 않고 박해나 악한 말 즉 위협을 받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빛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상이 크다는 것은 상이 작은 것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바울은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공력 즉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절)**. 이사야 선지자도 **62 장 11 절**에서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라고 하였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될 때까지 심판을 미룬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신 **8**가지의 복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금출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는 제자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자와 같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1 자기 필요에 의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마태복음 **8:1** 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2 자기가 중심일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 **(부자청년)** 마태복음 **10:21-22** 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3 그러나 제자와 같은 성도는 자기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 누가복음 **5:27-28** 절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좇으니라”**

둘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의 복은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 로마서 **1:17** 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2 예수님의 복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지킬 수 있습니다 – 빌립보서 **4:13** 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사도행전 **4:31** 절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 예수님의 복은 이 땅과 영원한 세상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 로마서 **2:6** 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것을 인하여 보응하시니라” – 마태복음 **16:27** 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것을 인하여 갚으리라”

셋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 복있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 빌립보서 **3:20** 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2 복있는 사람은 **천국에 상급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 고린도전서 **9:24** 절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3 복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 고린도전서 **6:20** 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